



# 양계 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 농장내 HACCP 중요성 부각 양계산물 안전성 문제 농장에 주목한다

양계산물의 안전성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되는 시대가 왔다. 금년 한 해만 하더라도 축산물내 항생제 잔류문제가 주기적으로 언론매체에 보도되면서 소비자들이 축산물에서 관심이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본회를 비롯한 수의과학검역원 등 관련 기관에서는 금년 한해동안 소비자 단체 관련인들을 초청해 안전하고 깨끗하게 생산되는 양계산물 생산 현장을 방문, 양계산물 안전성 및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분주하게 활동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런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소비자들을 외면한 양계산업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농장에서부터 항생제 등 위해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경우 최종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는 양계산물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욱 확보할 수 있어 소비 확대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계속적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엔로플록사신의 잔류문제는 농가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제제이다. 이 제제는 약효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수의사들의 무분별한 처방과 농가의 인식부족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 한국축산식품의 안전성 향상과 축산업의 발전을 가일층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부에서 도입한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지난 1997년 12월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개정으로 도축장 및 축산물 가공장에 대한 적용근거가 마련되었고, 2004년 1월부터는 유통·판매단계, 2005년 1월부터는 배합사료 생산단계, 2006년 3월에는 양돈농장을 시작으로 사육단계에 대한 HACCP가 확대 적용되면서 이제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모든 과정이 HACCP를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현재 HACCP 적용대상 업체는 지난달 말 현재 축산물 370개소, 사료회사 51개소로 총 421개소가 적용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양계분야에는 닭고기 포장, 가공업체 28개소(하림

등), 알가공업체 3개소(가농 등)로 총 3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 (사)축산물HACCP기준원이 개원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축산물HACCP기준원은 지금까지 정부의 주도로 추진되어온 HACCP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정부의 조직과 인원의 한계 등으로 사후 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생겨난 법인체이다.

현재 양돈농장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HACCP는 양계분야에는 오는 2008년부터 시범 적용될 것으로 예고되어지고 있으며, 업계 및 학계 등에서는 농장에서의 준비사항도 가끔 소개되어지기도 한다.

HACCP를 적용함에 있어 얼마만큼 농가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 기준원의 활동은 물론 효과적인 HACCP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장에서의 준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 대형화 추세로 가는 계란유통시장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길

금년들면서 사료회사들의 계란유통참여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계란은 양계조합이나 대형 유통상인을 주축으로 집하장이나 물류센터를 통해 백화점, 시장 등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보였고, 소상공들도 적지않은 판매활동을 보여주었다. 식품회사를 낀 사료회사들도 농장과 OEM사료를 공급하면서 특수란이나 상품란을 생산해 오던 것이 대기업들의 유통참여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가 이제는 보다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금년들면서 C사를 비롯한 산란사료 전문 사료공장들이 대규모 물류센터를 완공해 최첨단의 시설을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내 유통량의 20%에도 못미치고 있는 양계조합에서는 조만간 경기도에 대규모 유통센터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반 유통업체들도 시설을 보완하거나 새롭게 신축한 물류센터를 통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들고 나왔다.

사료회사들의 계란유통참여에 대해 각기 다른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흑자사업을 일궈내기 어려운 계란유통사업에 사료회사들이 굳이 뛰어들려고 하는 이유를 사료판매경쟁이 점점 높아지면서 고정적인 사료물량확보의 일환이라는 의견들이 있는 반면, 앞으로 계열화 형태의 대형 계란유통이 한 추세로 자리잡게 될 것이고 안전한 계란공급을 위해 새로운 시설과 브랜드로 소비자들을 공략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으로 집약할 수 있다.

계란의 시장규모는 1년에 1조 2천억원 시장을 자랑하고 있다. 업체들의 계란시장 참여가 국내 채란업 발전과 계란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해 본다.



## 한미 FTA 협상 어디로 가고 있나 정부의 한미 FTA 보고서 조작 논란

지난 2월 한미 FTA협상 발표 이후 지금까지 4차에 걸친 협상이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진행되어 왔으며, 이달에는 5차 협상이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끊임없는 농민들의 FTA 협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한미 FTA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화의 물결이며, FTA 체결시 경제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발표하면서 최대한의 유리한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 온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4차 협상이 진행된 이후 그렇다할 협상의 진전이 없는 가운데 농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2일 전국에서는 양계인을 비롯한 전국 농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갈등의 골이 커지고 있다.

농민들은 충분한 검토없이 미국측에 이끌려 졸속으로 이번 협상이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농민들은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상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이것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이번 협상을 전면 중지하여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일 KBS 시사기획 '쌈'에서는 정부의 FTA추진에 대해 제동을 거는 내용이 방영되면서 한미FTA 협상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미 FTA, 정부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 멕시코의 실 예를 들면서 FTA추진을 진행시켜왔지만 정부가 한미 FTA의 추진 근거로 삼아온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의 보고서'가 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이었다는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이 방영된 것이다. 내용을 보면 캐나다의 국민소득이 FTA협상 이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4%의 성장을 보여준 사례와 멕시코의 섬유산업이 몰락하고 있음에도 고도성장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보고서에 기록된 것이 밝혀지면서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신뢰를 잃은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계산물은 이미 현재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관세가 철폐되면 어느 산업 못지않은 희생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닭고기는 이미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4차 협상까지 진행되면서 아직 미정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양허유형을 결정지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기도 하다. 계란의 경우도 가공란은 말할 것 없으며 원란이라도 낮은 가격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해 오면 그 파장은 클 것으로 본다. 한미 FTA 협상의 기로에 서서 국익을 위한 진정한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양계**